

“5·18때 전두환씨가 자위권 발동 주장”

과거사위, 80년 신군부 집권과정 조사결과 발표

진압봉·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

빌딩마다 저격병 배치 조준사격도

국방부 과거사진규명위원회(과거사위·이해동 위원장)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18과 12·12 쿠데타 등 1980년대 신군부 집권과정과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이번 발표에서 5·18 때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과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한 ‘청명계획’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 군수부회의 지위로

발동을 주장한 사실이 보안사(현 기무사)에 보존된 2군사령부 작성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지 및 조치사항’에 적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서에는 ‘전(全) 각하(閣下 : 전두환) : 초병에 대해 난동시에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명기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 부대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

로 진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과거사위는 작전명 ‘충정’에 의해 진압에 투입됐던 공수부대원 가운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협역에 복무하고 있는 7공수 부대원 9명 중 8명은 집단면단한 결과 과격진압 사례가 있었다는 증언을 청취했다.

이들은 증언에서 부대원들은 흥분된 상태에서 시민들을 진압봉이나 촐개머리판으로 무차별 구타했을 뿐만 아니라 대검으로 찌르고 옷을 벗기는 등 과격진압을 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옛 전남도청 주변 빌딩에는 저격병을 배치해 조준 발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상 논란이 됐던 5·18 핵심 진상을 밝혀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과거사위는 ‘광범위한 조사에도 전남도청 앞 발포를 직접 명령한 문서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발포 명령체통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진술을 접하면서도 증언은 없었다’면서 ‘발포 명령자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 실명을 명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계엄군 집단 발포에 앞서 5월 19일(광주고와 계립과 출소 사이)과 20일(광주역)에도 발포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된 군 부대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

광주 비엔날레 검증시스템 또 구멍

오쿠이 감독 상하이비엔날레 자문회의 참여 사실 뒤늦게 확인 나서

상하이 비엔날레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인사들은 줄리앙 헤이린 뒤셀도르프 K2미술관장, 에델버트 루비엔나 현대미술관장, 우종 시카고대학 동아예술센터장으로, 이 모임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의혹이 미술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술계에 따르면 이날 모임은 상하이 비엔날레 주최측인 상하이 미술관이 마련한 것으로, 내년 상하이 비엔날레의 예비 큐레이터 사전모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술인 A씨는 “참석인사 가운데 주최측과 구체적인 큐레이터 계약조건을 논의한 인사가 포함돼 있으며,

면밀로 미뤄 이번 자문회의는 내년 상하이 비엔날레에 큐레이터 면접의 성격이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는 오쿠이 감독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로트회에서 중국과 상하이의 경제성장의 배경이 ‘이주자’라는 데 초점을 맞춰 수십 년간 연구한 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했을 뿐, 전시기획자로서 자문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로트회 참석과 같은) 내 자신의 지적인 작업들이 광주비엔날레에 소홀한 것 같은 인상을 주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韓총리, 주한 BIE유럽회원 10개국 대사 초청 오찬

여수엑스포 본격 드표전

韓 “여수 프로젝트 추진 3천만달러 투입하겠다”

2012세계박람회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한 드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수 국무총리는 24일 낮 총리공관에서 ‘주한 BIE 유럽회원국 10개국 대사초청 오찬’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1월 27일로 예정된 2012세계박람회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101개 BIE회원국 중 가장 많은 회원국이 본포한 유럽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과 여수의 박람회 준비상황 등을 설명하고, 또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총리는 이 자리에서 “2012여수 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은 엑스포 이념과 인류 문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주제”라면서 “한국정부는 여수의 엑스포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여수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모두 3천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유치지지를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는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포르투갈, 린란드, 벨기에, 터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각국의 대사 10명과 외교부 제1차관, 구주국장, 지역통상국장, 치유위원장, 김재철 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최한영 현대자동차 사장이 참석했다.

/총영기자 redplane@kwangju.co.kr

5·18단체 “발포책임자 규명 안돼” 실망

5·18기념제단을 비롯한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은 24일 오후 공동성명서를 내고 “미해결 과제인 발포책임자와 실종자의 행방이 규명되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군수부회 회의에서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주장한 사실과 민간인 사찰을 목적으로 한 ‘청명계획’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당시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이 군수부회 회의에서 자위권

했다는 자료와 계엄령의 전국확대 결정 이전인 5월 8일 회의에서 병력부임이 계획된 내용, 저격병에 의한 조준 사격 등은 계획적인 학살을 입증하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면서 “아직도 군사 기밀로 지정돼 공개가 안된 자료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을지만평

- 김종우



하여튼 이쪽도 골때려...

강진 고려청자 ‘보물선’ 발견

충남 태안 앞바다서 540점 인양…수만점 확인

12세기 중반 강진에서 제작된 고려청자 수만점을 가득 싣고 다니침몰된 고려선박이 또 한 척 발견됐다. 학계는 한국 수중 고고학 최고 최대의 사건이라며 흥분하고 있다.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심나준)은 주꾸미 어부가 이로 작업 중 고려청자를 수습한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대섬 앞바다 일대를 수중조사한 결과 고려청자를

다량으로 적재한 채 침몰한 고선 박한 척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탐사 결과 청자 운반선은 동서 방향으로 침몰해 있으며 선체 크기는 지금까지 확인된 고려선박 중 규모가 가장 큰 20m 가량이다.

침몰선박에서는 최소 6천~8천 점, 최대 2만~3만 점 가량으로 추산되는 고려청자가 종·횡 각각 3 열 이상을 이룬 채 발견됐다. 이 중

24일 현재 수습된 청자는 540여 점이다.

청자는 대접과 접시가 주종을 이루지만, 과형주자(참외모양 주전자), 항(缸·항아리), 발(鉢·바리), 단자처럼 이전 수중발굴에서

는 확인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종이 발견됐다. 나아가 이를 청자류는 기존 고려시대 해저 수습 청자류에 비해 고급품에 속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8월 2일(목) 8월 3일(금)

8월 4일(토) 8월 5일(일)

8월 6일(월) 8월 7일(화)

8월 8일(수) 8월 9일(목)

8월 10일(금) 8월 11일(토)

8월 12일(일) 8월 13일(월)

8월 14일(화) 8월 15일(수)

8월 16일(목) 8월 17일(금)

8월 18일(토) 8월 19일(일)

8월 20일(월) 8월 21일(화)

8월 22일(수) 8월 23일(목)

8월 24일(금) 8월 25일(토)

8월 26일(일) 8월 27일(월)

8월 28일(화) 8월 29일(수)

8월 30일(목) 8월 31일(금)

8월 31일(토) 8월 4일(일)

8월 6일(월) 8월 7일(화)

8월 8일(수) 8월 9일(목)

8월 10일(금) 8월 11일(토)

8월 12일(일) 8월 13일(월)

8월 14일(화) 8월 15일(수)

8월 16일(목) 8월 17일(금)

8월 18일(토) 8월 19일(일)

8월 20일(월) 8월 21일(화)

8월 22일(수) 8월 23일(목)

8월 24일(금) 8월 25일(토)

8월 26일(일) 8월 27일(월)

8월 28일(화) 8월 29일(수)

8월 30일(목) 8월 31일(금)

8월 31일(토) 8월 4일(일)

8월 5일(월) 8월 6일(화)

8월 7일(수) 8월 8일(목)

8월 9일(금) 8월 10일(토)

8월 11일(일) 8월 12일(월)

8월 13일(화) 8월 14일(수)

8월 15일(목) 8월 16일(금)

8월 17일(토) 8월 18일(일)

8월 19일(월) 8월 20일(화)

8월 21일(수) 8월 22일(목)

8월 23일(금) 8월 24일(토)

8월 25일(일) 8월 26일(월)

8월 27일(화) 8월 28일(수)

8월 29일(목) 8월 30일(금)

8월 31일(토) 8월 4일(일)

8월 5일(월) 8월 6일(화)

8월 7일(수) 8월 8일(목)

8월 9일(금) 8월 10일(토)

8월 11일(일) 8월 12일(월)

8월 13일(화) 8월 14일(수)

8월 15일(목) 8월 16일(금)

8월 17일(토) 8월 18일(일)

8월 19일(월) 8월 20일(화)

8월 21일(수) 8월 22일(목)

8월 23일(금) 8월 24일(토)

8월 25일(일) 8월 26일(월)

8월 27일(화) 8월 28일(수)

8월 29일(목) 8월 30일(금)

8월 31일(토) 8월 4일(일)

8월 5일(월) 8월 6일(화)

8월 7일(수) 8월 8일(목)

8월 9일(금) 8월 10일(토)

8월 11일(일) 8월 12일(월)

8월 13일(화) 8월 14일(수)